



*Analyst*

권순우

soonwoo@sksecurities.co.kr  
02-3773-8882

## 자동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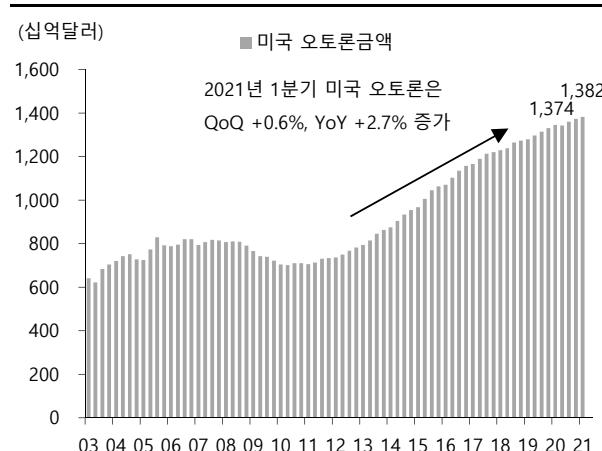
### 미국 오토론(Auto Loan) Update - 높아진 고신용자(760+) 비중

미국 오토론 규모는 전분기 대비 0.6% 증가한 1,382 조 달러 기록. 90 일 이상 연체 비중도 4.79%를 기록하며 5% 하회.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며 신용점수별 분포에서 저신용자(620~659, <620) 비중은 하락, 고신용자(760+) 비중은 사상 최고치 기록. 높아진 중고차자수는 신차구매에 우호적 환경. 생산차질에 따른 낮은 재고상황을 감안하면 경쟁완화와 함께 금융법인의 실적개선 지속될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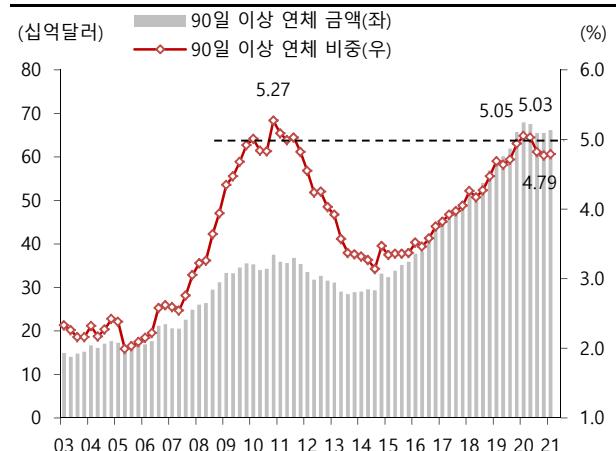
### 미국 오토론(Auto Loan) Update - 높아진 고신용자(760+) 비중

- 2021년 1분기 기준 전체 미국 오토론 규모는 1,382 조 달러로 전분기 1,374 조 달러 대비 소폭 증가(+0.6%), 전년 동기 대비로는 +2.7% 증가
-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2분기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이연되었던 수요회복과 맞물리며 오토론 규모 증가 지속
- 90일 이상 연체 비중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4.79% 기록하며 지난 분기 4.77% 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, 2020년 1분기 5.05%, 2분기 5.03% 대비 감소
- 신용점수별 분포를 보면, 저신용자(620~659) 비중은 11.2%로 2020년 하반기 이후로 감소 중(3Q20 12.3%, 4Q20 12.2%), 620 이하 신용자 비중도 15.3%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
- 고신용자(760+)의 오토론 내 비중은 전분기 36.0%에서 금번 분기 36.6%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수준 간신히
- 고신용자의 비중 확대, 저신용자의 비중 감소로 신용점수의 중앙값(Median)에도 변화. 2021년 1분기에 중앙값은 720로 이전 717 대비 상승, COVID19로 일시적 하락을 경험한 이후 꾸준한 상승 기록 중
- 오토론 내에서 신용등급이 변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COVID19 여파로 하락한 재고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가세함에 따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.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향 판매보다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고객 중심의 판매 진행
- 2021년 5월 기준 203까지 높아진 Manheim 중고차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차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
- 또한 4월 기준 54일까지 낮아진 재고일수를 감안하면 판매사의 리스크 관리도 용이할 전망. 경쟁완화와 함께 금융법인 실적의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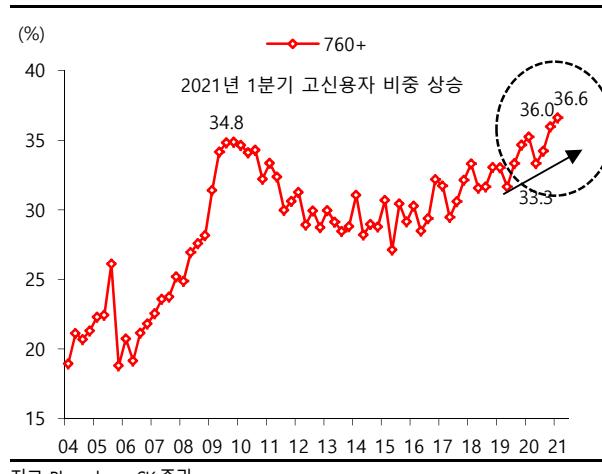
&lt;그림 1&gt; 미국 오토론 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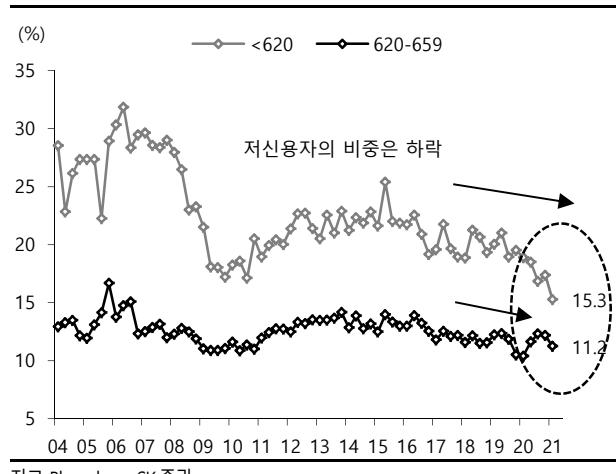
&lt;그림 2&gt; 90일 이상 연체비중은 4.79%



&lt;그림 3&gt; 전체 오토론 내에서 고신용자 비중은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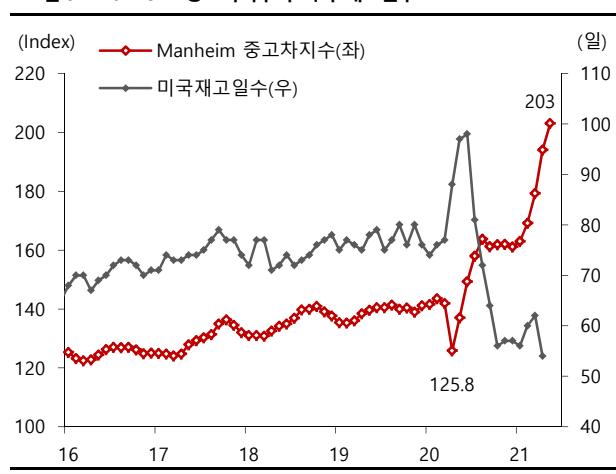
&lt;그림 4&gt; 저신용자의 비중 하락 지속



&lt;그림 5&gt; 신용점수의 중앙값도 상승



&lt;그림 6&gt; Manheim 중고차지수와 미국 재고일수



### 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(권순우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###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(2021년 6월 15일 기준)

매수	90.84%	중립	9.16%	매도	0%
----	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